

# 입지자 단일화… 광산구청장 선거 변수

박수기·이귀순… 차승세·정무창 합의  
현직 구청장 vs 단일 후보 선거구도 재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인지자들이 잇따라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 판도가 예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합동연횡으로 새판이 짜여지면서 6월 지방선거가 현직 구청장과 단일후보 간 경쟁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기 광주시의원과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3일 기자들과 차답회를 갖고 “광산을의 구청장 입지자 3명 중 우선 2명만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 심사 일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 구도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방식은 후대전화 문자 발송 방식으로 오는 5~6일 광산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의 추가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두 의원 간 단일화를 우선 진행한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선거 준비와 의정 활동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날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차승

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도 정무창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단일화하기로 했다.

오는 7일 오후 3시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열리는 차 특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전 의장이 차 특보에 힘을 싣는 형태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장 선거는 현직 구청장과 단일화로 압축된 후보들 간 경쟁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논의와 출

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면서 지방선거가 사실상 조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됐다”며 “지역별 연대·경쟁 구도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청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박병규 청장을 비롯해 박수기·이귀순 광주시의원, 차승세 특보 박광식 전 민형배 국회의원실 보좌관, 정무창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돼 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전남대학교 응봉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대학·청년 분야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청년 위한 일자리 창출해야”  
통합 대학·청년 시민공청회

## 한병도, ‘5·18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달 내 전남광주 통합 등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날마다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관세가 세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깊이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사진)는 3일 “5·18 정신을 현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6·3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야당의 조성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쉬었을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충남대전, 전남광주)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

##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반드시 반영을”

류기준 도의원 촉구



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으며, 해당 내

수당을 70만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6년간 동결돼 있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한 조치로, 농업 경영 여건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은 “공익수당 인상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직결되는 경영안정대책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월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벼 경

을 거쳐 공유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이 선출되기 전에 전남 농업 예산은 책

임 있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상반기 추가 경영예산을 통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포함한 농업 예산을 확정함으로

써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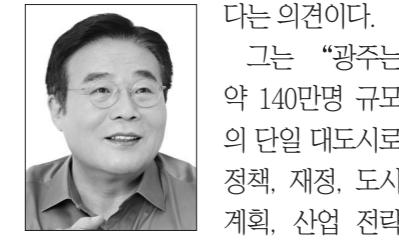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행정통합, 광주 정체성 제도적 보장을”

이병훈 광주특별시 신설 제안



다는 의견이다. 그는 “광주는 약 140만명 규모의 단일 대도시로 정책, 재정, 도시 계획, 산업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집행해 온 반면 전남

도는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각 시, 군이 서로 다른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가진 독립적 기초자치단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 구도가 광주시의 법적, 행정적 정체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광주특별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며 “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내용 속에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우선 행정구조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명창환 전 전남도 부지사, 조국혁신당 입당

#### “여수 위해 전략적 선택…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전남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사진)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명 전 부지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고민 끝에 여수의 산업·경제·민생 위기를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개혁 정치세력이다.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 탄생에 힘을 보탠 동반자”라며 “기회균등, 정치

개혁, 저출산 대응, 지방정부 권한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 거대 여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 여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오는 10일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인 신미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 점검했다.

### 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신미경 후보자 대상 도덕성·전문성 집중 질의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인 신미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중심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지역 복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청문 결과를 토대로 4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공공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 역량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신미경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여수여고와 광주보건대학교를 졸업한 뒤 의료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한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여수시노인복지관장과 여수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여수 진달래마을요양원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경험해 왔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